

2015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사업 최종 심의평

○ 심의일정

- 서류심의 : 7.6(월) 10:00 ~ 18:00
- 현장방문 : 7.16(목)~7.23(수)
- 인터뷰(PT)심의 : 7.28(화) 10:00~18:00
- 컨설팅 회의 및 재심의 : 8.11(화), 8.17(목)

○ 심의위원 : 이수홍(위원장), 김해곤, 신호섭, 이수홍, 홍보라 (총 5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2015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 사업에 관한 예술인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심의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미술관 사업 공모에 총 43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서류 심사(7.6)를 거쳐 12개 단체를 선정하고 현장 방문 실사를 하였고, 이 중 9개 단체를 대상으로 발표 심사(7.28)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조건부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후, 서면심의(8.17)를 거쳐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에 참가한 단체마다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배경과 사업의 목적은 그 당위성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현장 심사와 발표 및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기획의 구체성 결여, 예산내역의 비합리적 구성, 공간 활용의 적합성 미흡 등의 결격 사유가 적지 않았고 특히 미술관의 기능인 기획이 있는 전시 결과물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와 유희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당선에서 제외된 점은 안타깝습니다. 심사위원들 개별적으로 자신의 정성평가를 뒤로하고 토론과 비교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그 결과가 지역의 고른 안배를 가져와 치우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심사위원장 이 수 홍

심사위원 김해곤, 신호섭, 이재준, 홍보라 일동